

동부한농화학, 최성래 사장 영입

삼성석유화학 대표이사 출신 ... 재료부문장은 정진천 부사장

동부그룹은 바이오·첨단소재와 IT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부한농화학의 총괄사장(CEO)에 최성래 전 삼성석유화학 대표이사를, 동부한농화학의 재료부문장 부사장(COO)에 삼성종합화학 출신의 정진천 씨를 각각 영입했다고 2월1일 발표했다.

또 IT서비스 계열사인 동부정보기술의 컨설팅 사업부문장 겸 CTO(상무)에는 오세현 전 인젠 부사장을 영입했다. 오세현 상무는 동부그룹의 전체 계열사를 통틀어 첫 여성 임원으로 기록됐다.

동부한농화학의 최성래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삼성물산 파리지사장, 삼성그룹 비서실, 삼성전자 유럽본사 대표 등을 거쳐 삼성BP화학과 삼성석유화학의 대표를 역임했다.

정진천 부사장은 서울대 물리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삼성석유화학 관리본부장과 삼성종합화학 전략기획실장을 거쳐 중앙일보 에듀라인 대표를 지냈다.

동부그룹은 최근 동부한농화학의 사업구조를 바이오 및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삼성그룹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동부그룹은 2005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인사팀장 출신으로 CJ홈쇼핑 대표를 지낸 조영철 씨를 동부 사장으로 영입한 것을 비롯해 김흥기 동부정보기술 사장과 임동일 동부건설 부회장, 오영환 동부아남반도체 사장 등을 삼성에서 끌어들이는 등 삼성 출신 인재를 영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부그룹 주력 계열사의 대표는 대부분 삼성 출신 인사들이 차지했으며 전체 임원 180명 중 3분의 1이 넘는 70-80명이 삼성그룹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6/02/02>